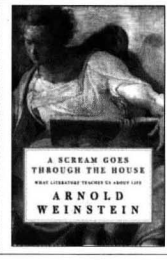
English



원제 A Scream Goes Through the House : What Literature Teaches Us About Life
저자 Arnold Weinstein 아널드 와인스테인
출판사 Random House

인간의 힘, 그것은 곧 인간의 상처

양희정 _ 민음사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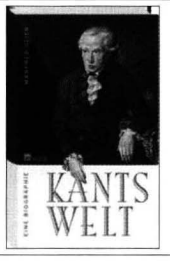
'인간 중심의 학문' 이 꽃을 피우던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에서, 소포클레스는 오이디푸스의 '지혜' 와 '무지' 를 통해 '인간의 이성' 에 의문을 던진다. 사회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오이디푸스' 가 '부어오른 발' 을 의미하며, 그의 아버지 '라이오스' 는 '좌左로 치우친' , 그의 할아버지 '라브다코스' 는 '절름발이' 란 뜻에 주목한다. 즉 '똑바로 행동'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네 발 짐승인) 스핑크스의 지배에서 테바이를 구한 오이디푸스에게 또 한 번 기대를 걸어보지만, 테바이 재앙의 원인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오이디푸스가 (두 발로 똑바로 걸을 때) 저지른 죄악(아버지 살해와 어머니와의 동침) 때문이다. 와인스테인이 이렇게 인간의 이성에 문제를 제기할 때 독자의 머릿속엔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간의 운명이 각인된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성인이 되어서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취약한 존재다.

저자는 문화를 지적인 작업으로 해석하고, 독서나 감상을 사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이성중심의 사고에 물음표를 단다. 문학과 예술은 본질적으로 감정적인 교류로서 지극히 사회적이며, 우리를 보다 넓은 커뮤니티로 안내한다는 것이다. 즉 '예술을 통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다.' 저자는 소설, 그림, 영화와 같은 예술작품이 타인의 불안한 영혼과 감각을 감지하는 통로라고 말한다.

샤롯 브론테가《제인 에어》를 쓴 것은 분명 상처받은 영혼을 그리려 한 것이다. 학대받던 제인의 어린 시절은 붉은 방에 갇힌 그녀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빛에 놀라 두려움으로 떠는 에피소드로 요약된다. "가슴이 심하게 뛰었고, 머리에선 열이 났다. 날갯짓 같은 소리가 내 귀를 채웠고, 뭔가 다가오는 듯했다. 난 완전히 압도되어 숨이 막혔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곧 끔찍한 소리에 놀란 하인들이 몰려왔다. 그러나 소설 어디에도 제인이 절규했다고 언급하진 않는다. 브론테는 두려움의 감정을 상상의 붉은 방에 투여하여 독자에게 프로이트의 '두려운 낯섦uncanny' 을 불러일으킨다. 절규는 내면에서 시작하는 고통의 신호다. 그러나 그것은 내면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도 않는다. 그것은 내면 밖으로 나와 '집 전체를 관통' 한다. 그리고 독자의 영혼을 관통한다. 브론테는 놀랍게도 분별 있는 한 소녀의 분열된 자아를 로체스터의 미친 아내에게 투사해 냈고, 와인스테인은 문학적 교류를 제인의 절규에 비유한다. 저자는 앞에서 불완전한 인간을 강조하지만, 결국 인간의 상처는 인간의 힘이라는 역설로 마무리한다.

브라운대학교 문학 교수가 이 책에서 자신보다 뛰어난 천재들의 작품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인간의 마음은 자신의 내면을 통과하여 타인에게 연결되는 감각이다. 문학과 예술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 있다. 나를 세계와 연계시키는 동맥이자, 내 감정을 비추는 거울로서. 그리고 나의 깊은 내면을 표현하는 신비로운 기호이자, 셰익스피어와 뭉크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감각의 세계로 인도하는 문으로서." 그것은 곧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예술의 힘이다. 저자는 블레이크, 프루스트, 유진 오닐, 카프카, 포크너, 토니 모리슨, 디킨스와 같은 거장들의 작품을 통해 나와 타인의 삶을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독서는 정신뿐 아니라 감정적인 활동이며, 삶을 지배하는 힘(두려움, 고통, 상실감, 좌절, 죽음과 사랑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만든다. 예술은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영혼에 자유를 부여한다. 해럴드 블룸이나 존 업다이크,《창조자들》의 저자 부어스틴과 같은 굵직한 저자들의 글에 매료된 독자라면 이 책에 만족할 것이다.

Germany



원제 칸트의 세계 Kants welt
저자 만프레드 가이어 Manfred geier
출판사 로볼트 출판사 Rowohlt

인간적 생애에서 철학까지 주도면밀하게 조명하는 칸트 전기

김좌근 _ 미다스북스 편집부

우리 집 책꽂이에는 못난이가 한 권 있다. 다른 것들에 비해 키가 작은 그 책은 읽는 것보다는 꽂는 데 더 집착하는 내게 항상 불만거리였다. 키 순서대로 가지런히 정돈하려 해도 웬만한 시집보다 작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그 책은 항상 다른 책들의 위상을 떨어뜨렸고,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라는 그 내용으로 분류하자면 더욱 초라해지기 마련이었다. 그 책은 바로《칸트》이다.

임마뉴엘 칸트는 18세기 사상계의 거인 중 한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그의 생애는 단순했고 그의 저서들은 난해하다고 알려져 왔다. 아무리 생애가 단순했다지만, 이 위대한 사상가의 일생을 담는 전기의 모양새가 그토록 작고 초라하다는 것은 내게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비록 그가 가진 사상과 그의 저서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인물을 있게 한 그의 성장과정과 위대한 사상을 만들어낸 세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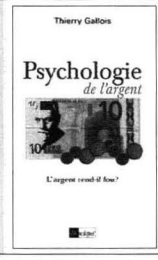
때마침 독일의 로볼트 출판사에서 칸트의 사후 200주기를 기념하여 그의 비판적인 철학 전반을 매우 흥미롭게 기술한《칸트의 세계》가 출간되었다. 저자 만프레드 가이어는 칸트의 생애와 그의 주요 저서들을 탁월하게 연관지어 그 삶의 국면들과 그로부터 탄생한 작품들을 조명한다.《칸트의 세계》는 한 작은 인간에서 세계적 사상가로의 성장과정, 그의 철학이 어떻게 혼돈에서 조화를 창조해 냈는지, 쾨니히스베르크 출신의 교수인 그가 어떻게 철학의 혁명을 일으켰는지 등의 내용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책에 의하면, 칸트는 유럽정신사에서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을 나타내는 징후이다. 프랑스 혁명이 그렇듯 칸트의 철학이 생겨나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인류사의 흐름에 있어서 가능한 하나의 진보를 나타내는 그런 사건인 것이다.

이 철학자의 전기에는 무수히 많은 세계가 담겨 있다. 그가 살아생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18세기의 쾨니히스베르크의 세계, 친구들의 모임처럼 그렇게 격 없이 지낸 정신으로 묶이는 세계, 정서적인 인상들로 이루어져 끊임없이 변해 가는 내적인 세계, 각종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지성으로 따져 깨닫는 예지의 세계,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들어가게 된 초월의 세계 등이다. 칸트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의 모든 거대한 정신적·정치적 문젯거리들을 명쾌하고 뚜렷하게 헤쳐 밝혀 놓았고 그 해결책 또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전기는 학술적 바탕에서 출발한다. 끊임없는 연구와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전기의 출간이 가능한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전기시장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칸트의 세계》는 정리와 분류가 완벽한 방대한 문서고를 자랑하는 독일에서 출간된 작품이기에 의미가 깊다. 칸트의 인간적 생애뿐 아니라 그의 철학까지 함께 아우르는 내용의 올바른 번역을 위해 현재도 애쓰고 계신 한국칸트철학회 회장님의 번역본이 기대된다. 모쪼록, 내년 2월에 출간될《칸트의 세계》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칸트 전기의 모범이 되는 작품이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나의 책꽂이에도 그 이름에 걸맞도록 자랑스럽게 꽂을 수 있는 훌륭한 장정이길…. 출판저널

France



원제 돈의 심리학
Psychologie de l'argent
저자 티에리 갈루아
Thierry Gallois
출판사 락쉬벨 Larchipel

돈에 대한 태도는 수입이 아니라 인격과 개성이 좌우한다

한소원 _ 신원 에이전시 대리

IMF 이후에 한국 독자들의 화두는 단연 돈이었다. IMF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 관계 서적들이 국내 기획서 및 외서를 막론하고 출간되었는가!

사실, 돈은 동서양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의식주의 해결이라는 단순한 논리와 문화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현대생활에서는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혹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인 것이 아닐까? 이 책은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프랑스 책은 단순히 돈을 잘 벌고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가 아니다. 돈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사례별로 들어 사람들이 느낀 다양한 감정들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더 나아가 심리치료사이자 병리학자인 저자의 역량으로 돈에 대한 각 개인의 감정을 스스로 보다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이 돈에 갖는 다양한 감정들을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생활방식만큼이나 독특하고 재미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돈이 많은 안락한 생활에 대한 죄의식을 느낀다. 또 어떤 이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의사와 결혼을 하고도 돈에 대해 무척 인색하다.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육신의 병이 든다.

인간과 돈의 관계는 왜 이리도 복잡하고 양면성을 띄는 것일까? 저자는 그 이유를 돈이 우리의 욕망과 현실의 교차점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돈을 접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수입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개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돈에 대한 심리학적 역학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자는 돈에 대한 교육에서 시작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이란 단순히 학교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배우는 돈의 가치와 터부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터득하는 돈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말한다. 이는 다시 말해 돈과 권력, 돈과 힘 그리고 사랑의 대체물로 본 돈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저자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돈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쉽게 저지르는 도둑질을 예로 든다. 셋째로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돈의 의미와 영역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하고 부부사이의 돈관리가 어떻게 하면 이로울지를 제시한다. 넷째로는 왜 우리가 돈을 쓰는지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는 돈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와 돈과의 관계를,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돈을 쓰는 형태에 따라 깍쟁이와 구두쇠, 절약가와 낭비하는 사람들로 나누면서 그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준다.

아홉 번째로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돈과 관련된 놀이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궁극적으로는 놀음에 대한 치료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열 번째 장부터 열두 번째 장 까지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요즘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로또 열풍, 다시 말해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의 심리를 들추어내면서 이에 대한 몇 가지 권고를 한다. 마지막으로는 돈을 가지고 보다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한다.

프랑스 서적들이 대부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영역을 확장해 다소 우리나라 정서에 무겁게 다가오는데 반해 이 책은 돈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이라는 비교적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이중적 혹은 다중적 감정들을 묘사하면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준다. 돈벌이에 급급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써야할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의미있는 책이다.